鄭英昊(生物) 張世憲(化學) 趙淳卓(物理) 鄭昌熙(氣象) 金孝經(換氣)(以上 서울大) 金正基(建築)

金山寺通信(一)

申 榮 勳

八月 二十五日 入札을 보아 世寶企業社(代表楊澈洙氏)에 二十九萬五千원에 落札되어 八月 二十九日 契約을 하고 九月 五日부터 着工하였는데 그후 계속되는 降雨와 木材購入難으로 延期되어 오다가 날이 들자 九月 二十日부터 治木을 始作하게 되었다。其間 建物의 內外를 살살이 調査할 수 있었는데 銘文이나 記錄은 發見할 수 없었고 단지 女莫斯瓦中에 「天啓元年辛酉三月日云云」「康熙十九年云云」의 것이 混在하고 있음을 보았고 一층과 三층의 추녀 끝에 원래 활주를 끼었던 구멍으로 추정되는 것 등이 알려졌고 아래층 동남우 활주의 초석아래 안상이 새겨져있는 다듬돌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이부분에 한 층 더 세밀한 조사를 시행하였더니 원래 활주를 받쳤던 것을 후에 보수하면서 빼어 버렸고 활주구멍이 없는 추녀는 후보물임이 밝혀져서 이번 보수에는 보강하는 의미에서라도 모두 활주를 받치도록 하였다。안상돌은 빼어서 별치하도록 하고 다른 돌로 이 부분을 메꾸도록 하였다。

大寂光殿의 基壇과 주위에는 從來 基壇의 甲石(?)으로 使用되었으리라 추정되는 것들이 散하고 있으나 全貌를 알 수 없어 判斷을 하지 못하고 있다。

大寂光殿에는 「同治四年乙丑正月日 現王幀奉安于 深源庵云云」의 佛畵가 있으며 總高 九九·七㎝의 銅鍾이 一口 있고 後佛壁後面에 白衣觀音菩薩立像圖가 있는데 이는 無爲寺極樂殿·來蘇寺大雄殿·仙巖寺大雄殿 等에서 볼 수 있는 그것들과 같은 계통의 것이나 年代는 훨씬 떨어지는듯이 보인다。

「金山寺誌」가 原來는 板本(?)으로 있었다하나 지금은 없고 複寫紙로 複寫한 美濃罫紙의 것만이 傳하고 있다。기록에 의하면 梵鍾이 一口 있었는데 一口는 日帝時 供出하여 없어졌다고 한다。덩그렇이 비어있는 鍾閣 앞에 碑身破片이 三片 있는데 其二는 南巖大師碑이고 一片은 前後에 無一字이어서 누구의 碑인지 모르겠으나 側面에 浮彫한 龍脚을 拓本할 수 있었다。

方等戒壇을 寺誌는 惠恭王二年에 造成한 것이라하나 믿을 수 없고 壇身에 새겨진 飛天像들을 쭉 둘러가며 二十四枚 拓本하여본 結果는 高麗的인 樣式이 多分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其外 幢竿支柱·五層石塔·六角多層塔·石蓮花臺座·石燈·慧德王師眞應塔碑는 俱存하고 있다。寺誌에 記錄된 各 庵址를 찾아 보느라 하였으나 徒勞에 그쳤고 山上의 石塔만을 돌아 볼 수 있었다。

九月 十八日 金庠基博士·金斗鍾博士一行이 來寺하여 工事의 經過와 寺內의 狀態를 調査하였다。筆者는 一行을 隨行하여 全南古蹟巡禮에 參加하게 되었다。

——第三卷 第十一號 通卷二十八號——

德美 金銅半跏思惟像의 左足과 蓮座

黃 壽 永

一

國內에서 傳世한 高 約 三尺의 金銅半跏像兩軀는 우리나라 三國時代 彫刻史上의 代表的 作品들이다。그 中에서도 德壽宮美術館像(以下 德美像)은 近年에 美國뿐 아니라 歐州各國의 展示會에도 出陳되어 世界의 絕讚을 받은 바 있었다。筆者는 數年來 이들 兩軀의 半跏像을 注目하면서 傳來地點의 確認과 그 樣式系譜 및 信仰的背景을 살피고자 하였다。그리하여 이들에 對하여서는 장차 새로운考察이 있어야 함을 말한 바도 있었거니와① 그같은 契機는 半跏思惟像의 新例가 國內에서 漸增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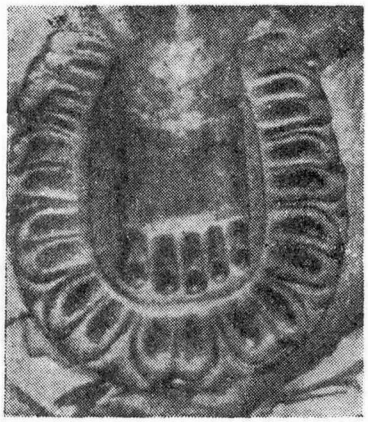
滿二年前의 일이다。一九六〇年 十一月 十日頃이었다고 記憶하는데 國立博物館에서는 歐州展示를 위한 包裝作業이 시작되던 날 午後 七時가 넘은 때이었다。이 德美像과의 作別이 무엇보다 섭섭하였기에 崔淳雨兄께 부탁하여 包裝順位를 뒤로 밀고 故 全鎣弼先生과 함께 몇 時間 머므르면서 이 佛像의 細部를 조사하고 各部의 撮影을 부탁하기도 하였다。앞으로 數年間은 이 作品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心情이 앞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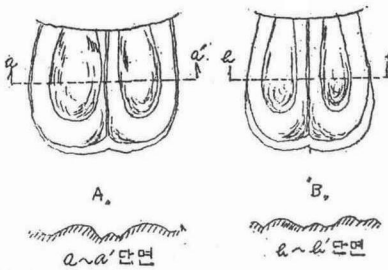
만하였다。그런데 筆者에게는 이 德美像에서 오랫동안 疑問으로 삼아오던 一點이 있었는데 그것은 垂下된 左足端과 그것을 받치는 楕圓形 臺座의 蓮花紋樣式이었다。이곳에 留意케된 것은 恩師의 말씀을 간직하고 왔기 때문인데 高裕燮先生께서는 塔像考察에 있어서 身部만이 아니라 그에 附屬되는 臺座部를 注目하라고 하였다。그것은 樣式의 變遷은 도리어 이같은 副次的인 곳에서 먼저 表現되므로 이같은 곳을 疏忽이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이었다。이 德美像에 있어서 身部와 그 圓形臺部가 모두 樣式이나 技法에서 同時籌成임은 아무런 疑問이 없다。다만 臺座部의 尖端인 이곳 左足은——이곳은 그다지 注意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筆者에게는 釋然하지 못한 곳이였다。그러나 筆者 또한 이 作品의 完全性을 의심한 바 없었고 또 감히 의심하려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만한 懷疑點을 곧 解明하려 들지 못하였고 漠然히 앞으로의 考察에서 다루기로 밀어 왔던 것이다②。

筆者는 最後告別의 이 瞬間에 서서 이 年來의 注目點을 다시 한번 사겨 보려고 애를 썼다。이 半跏像 左足의 발등위를 지나가는 細微의 一線이 눈에 띈 것은 바로 이때이었는데 그 細線은 圓臺가 蓮座와 接하는 兩端에 이르기까지 延長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다음에 館員의 助力을 얻어서 机上의 이 佛像을 앞으로 끌어내어 突出된 이 部分의 下底部를 살피고는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그 밑에는 一條의 굵은 金屬線이 內空된 足裏 깊숙이 그 兩端에 걸쳐서 橫架되어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으며 다시 左足部가 接하는 正面中央의 衣紋尖端에는 補修의 痕跡(이곳에 後補部分을 결었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그리하여 이 斷線을 따라서 左足의 前半部와 後半部가 兩分된 것을 알 수 있었다。이같은 諸點이 모두 改修의 자취임을 깨닫고 오랫동안의 疑惑이 한번에 풀려나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새로운 着眼에는 興奮과 歡喜가 뒤를 따랐다。同室의 澗松先生과 崔兄에게 이 點을 說明하여 即席에서의 贊意와 助言을 얻은 것은 또한 多幸한 일이었다。그리하여 이 左足前部와 그 蓮座가 모두 原作이 아닌 後代의 補品이어서 그들이 지니는 樣式은③ 身部나 圓臺와는 다른 造型이며 다른 美感임을 새삼스러히 느낄 수 있었다。

三

그런데 이같은 推定을 뒷받침하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뚜렷한 證據가 있다。그것은 이곳 蓮瓣이 그 奧處에서 겨우 보이는 蓮瓣(向左三、向右二)과 判異한 樣式을 보이고 있어 이 後面의 것이 造成當初의 것으로 推定되었기 때문이다。(插圖 A、前面 B、後面) 발꿈치를 돌아서 안쪽으로 보이는 蓮花紋은 같은 複瓣이기는 하나 花瓣이 細長하고 子葉이 길며 隆起度가 낮은데 이 前面의 蓮瓣은 넓고 子葉이 짧고 여무지게 알지고 있다。그리하여 이같은 比較를 통하여서도 일찌기 이 左足端이 折損됨에 따라서 다시 原形을 模하여 新舊部分을 連結固定시킨 것이며 그 時期로서는 作品年代에는 멀지 않은 新羅統一期로 推定코자 하였으나 이에 對하여서는 계속하여 傳來 및 搬出經緯를 追究하여야 될 것이다。이같은 後補가 있은 以後 歷代를 통하여 漆金과 塗灰가 거듭됨에 따라 그 連接部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곳이 注目을 받지 못하고 왔을 것이며 이제 다시금 着眼된 原因은 지난 二年間의 美國內 展示를 위한 動搖에 따라 이 接續線이 겨우 눈에 띄일 程度가 되었다는 것이 論議되기도 하였다。이때 곧 連想된 것은 日本 京都 廣隆寺의 木造半跏思惟像이었는데 모든 點에서 우리 德美像과 恰似한 이 在日像에 있어서도 「臺座가 新調되고 兩足은 修補」⑤된 것은 또한 奇妙한 一致라 할 것이다。





四

이제 德美像은 二年間의 歐州巡回展을 끝내고 歸國하여 朝夕

으로 對面케 된 것은 다시 없는 즐거움이다。그 사이 혼자 수고를 알아 주신 崔兄과의 再會 또한 반가운 일이었다。그러나 二年前 이 調査를 指導하여 주셨고 이제 그 歸國을 맞아 누구보다 기뻐하실 澗松先生은 다시뵐 수 없는 길을 떠나시고 말았다。지난 十一月一日 展示品이 들어있는 一室에서 이 菩薩像을 對하여 無事함을 즐거워하면서 또한 感慨無量한 바 있었다。數年前의 기억을 더듬어 이 小文을 적게된 것은 이와같은 追念에서인데 筆者에게는 잊을 수 없는 回顧인 동시에 이 優美한 金銅像研究에 있어서도 작은 이야기꺼리가 될 수 있지않을까 한다。(十一月七日)

註

① 拙稿：百濟半跏思惟石像小考(「歷史學報」第十三輯一九六〇年十月)

② 國立博物館 半跏像의 左足部가 元來의 것임을 疑心의 餘地가 없으나 그 蓮花紋의 解明이 重要點의 하나임은 德美像에 있어서와 同一하다。

③ 德美像 左足의 形態가 新羅統一期 金銅立像의 것과 同式이며 足指의 발톱이 圓形을 이루는 것도 三國時代의 作品이 ㄷ形을 보이는 것과 다른 點이다。이같은 比較는 德美像의 兩足指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④ 이같은 蓮花紋樣式은 百濟末期作品(例컨대 扶餘窺岩面寺址 出土인 國博藏의 金銅菩薩立像臺座——舊日人庭瀨所藏品——또는 同面出土의 蓮花紋瓦當) 또는 新羅統初의 蓮花紋瓦當이나 石造臺石에서 볼 수 있다。

⑤ 千瀨楨治：廣隆寺の 半跏思惟像について上、下(「MUSEUM」一一六、七號一九六〇年、十一·二月)

安城 二竹面의 菩薩立像과 臺座

Mrs. Harriet C. Mattusch

一

京畿道 安城郡 敎育課를 찾아 職員의 案內를 받아 安城郡 二竹面 竹山里 竹山商業高等學校後庭에 눕혀져 있는 光背가 달린 菩薩立像을 調査케 되었다。이 佛像은 이 學校의 歷史先生인 최원진氏가 一九六一年十一月頃 竹山里 서울醫院 옆집 어느 담장 속에 들어있는 것을 發見하고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即時 現位置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顔面은 若干 破損되었다。古蹟 및 藝術品의 目錄作成을 責任맡고 있는 同郡 敎育課職員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佛像의 表面一部를 떼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나 또는 他液體에 混合 服用하면 私生兒를 落胎하게 된다는 믿음이 이 地方 婦人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듣고 있는 婦人들이 佛像이나 彌勒앞에 정성을 드려 애를 낳게 해달라고

